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고통 체험: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적용

김현경<sup>1</sup> · 이옥자<sup>2</sup>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sup>1</sup>,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2</sup>

## Lived Experience of Psychological Suffering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Applied to Pars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ology

Kim, Hyun Kyoung<sup>1</sup> · Lee, Ok Ja<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ork, Howo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is to understand experienced trauma of North Korea refugees before entering in South Korean and know how to connect their traumatic experience with the present life. **Methods:** 5 members of North Korea refugees were recruited and approved by the producer of phenomenological and heuristic Human Becoming Methodology of Parse in this study. **Results:** Mental care service for refugees is needed because North Korea refugees were suffered from post traumatic stress for many years after entering South Korea. **Conclusion:** According to the mental health expert, North Korea refugees would be understood in the viewpoint as Human being in the environment and it is necessary to the remedial intervention to maintain their hope of future simultaneously.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Psychological suffering, Parse, Qualitative research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2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해 2천여 이상이 남한에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0).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기에 이들을 이웃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국제이주결혼여성으로 인하여 다문화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일반적인 다문화권 대상자와는 독특한 차별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남북은 한국전쟁 60여년이라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이주자로서의 독특한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통일 이후 남북주민의 통합을 위한 심층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들을 실행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에서 그들의 심리·정서적 체험을 드러낸 질적 연구는 소수이다(Kim & Lee, 2009; Lee & Kim, 2007).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역시 자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난민이주자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들이 북한에서

**주요어:** 북한이탈주민, 심리적 고통, 파시,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Ok, Ja Lee,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685 Gasuwon-dong, Seo-gu, Daejeon 302-718, Korea. Tel: 82-42-600-6341, Fax: 82-42-545-5326, E-mail: ojlee@konyang.ac.kr

- 본 연구는 일부 호원대학교 교내지원금으로 실행됨.

- This study was partially supported by the Howon University Research Fund.

투고일 2010년 7월 19일 / 수정일 1차: 2010년 10월 5일, 2차: 2010년 10월 24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0월 28일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심리적 고통 체험이 남한 정착 과정에 끊임없이 연계될 것이며, 그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고통 체험은 남한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난민이주자의 독특한 경험이라고 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이주자로서의 독특한 위기사건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 고통 경험으로 인하여 남한에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은 그 간 남한 사회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난민들의 정신건강은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신건강을 논하는 것은 사치품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 정도로만 보았기 때문이었다. 난민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들은 난민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의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들이 그들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리고 안정된 수입을 갖고 살게 된다면, 모든 정신적 문제는 즉각 해결될 것이므로 그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었다(Arnhoff, 1975; Jeon, 2007). 그렇지만 이미 발생한 심리적 충격들과 그 결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그들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난민이주자들이 경험한 심리적 충격의 결과는 자연스런 반응 이상이며 감당하기에 큰 고통이라 할 수 있다(Herman, 1997; Summerfield,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고통과 관련되어 나타난 일상생활에서의 반응들을 난민이주자로서의 경험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해해보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고통 경험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기존 질적 연구인 Lee와 Kim (2007)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기혼남성 두 명과 여대생 세 명을 대상으로 이질화된 남한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적응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자아성취를 향한 분투노력 과정 및 가족통합을 위한 노력 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미혼남성 두 명과 기혼여성 두 명, 미혼여성 한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리하자면, 2명의 남성(라디오방송국 직원, 대학생)과 3명의 여성(의과대학생, 보험설계사, 주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주제에서의 차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기 이전에 경험한 심리적 고통 체험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고통 체험의 의미가 남한 입국 이후의 삶에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고통 체험이란 북한 및 중국 등 제3국이라는 과거의 시공간에서의 체험이 남한이라는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며 통합되어져가는 역설적인 구조라고 파악하였다. 하여 Parse (2001)의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이유는 그녀의 방법론이 너와 나의 대화에서 나누게 되는 상실, 불안, 고통 등 삶의 질과 연관되는 체험의 의미를 찾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에 관하여 연구자와 참여자가 대화를 나눔으로써 연구자와 참여자의 인간되어감에 연구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Parse는 인간의 보편적 체험의 구조에 관한 의미-관계패턴-초월의 추상적 개념으로 인간되어감 과정을 해석학적이고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간호대상자의 체험을 이해하는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고통 체험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 이전 과정에서 실제로 북한난민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술하는 체험의 본질을 인간되어감 이론에 따라 현상학-해석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북한난민의 정신간호중재를 위한 지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입국 이전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고통 체험이란 어떠한 것인가?’이다.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외상 체험에서의 의미-관계-초월적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데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Parse의 인간되어감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로서 연구자는 참여자와 연구를 위한 너와 나의 관계형성을 시작하기 전에 전화 또는 구두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동시에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 연락처, 연구목적과 방법, 과정에서도 대답을 원

치 않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나와 나의 관계형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익명 처리를 통한 비밀유지와 녹음된 대화내용은 학문적 용도로만 활용하고 지울 것이라는 내용을 문서화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동의를 얻었다.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유의적 표집방법인 눈덩이 표집을 적용하였다. 종교재단 NGO 단체를 통해 남한에 입국한 지 2년 이상 된 북한이탈주민 5명을 소개받았다. 2명의 남성(라디오방송국 직원, 대학생)과 3명의 여성(의과대학생, 보험설계사, 주부)으로 구성되었다.

## 3. 자료수집

자료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수집되었다. Parse의 연구방법에 따라 나와 나의 관계형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를 위한 질문은 ‘남한에 들어오시기 전에 북한에서나 제3국에서 심리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경험이었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주시 수 있는지요?’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대화 장소는 연구자 및 참여자의 채택, 조용한 식당이나 찻집 등에서 이루어졌다. 대화는 5회 이상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각 대화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대화내용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녹음되었으며, 녹취 내용은 본 연구자가 당시의 언어,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 청취하면서 워드프로세스에 직접 필사하였다.

## 4.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 1) 나와 나의 관계형성

인터뷰가 아닌 연구자와 참여자가 진정으로 함께 하면서 체험에 대해 비구조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이 어떻게 회상되는지, 현재의 체험은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 체험으로 인한 미래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그 내용이 나타나도록 대화를 한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에는, “...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요”와 같이 반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방시키도록 노력한다. 연구자는 각 참여자가 자신의 체

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참여자의 체험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각 참여자들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참여자들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 2) 추출-종합

참여자의 언어로부터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형태에 대한 개념적인 본질을 선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참여자가 묘사한 체험의 의미를 이끌어 내도록 집중적으로 녹음된 대화를 기록하면서 나타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구조(과거, 현재의 순간,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모든 것을 동시에 재 체험하는 역설적인 삶)가 연구문제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 과정은 참여자의 언어를 적은 기록에서 그 경험의 주요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주요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다.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 자료에서 언어적 예술을 만든다. 만들어진 언어적 예술에서 핵심개념을 다시 뽑아낸다. 구조는 언어적 예술의 중심의미를 나타내는 관념이며, 추출된 구조를 체험의 구조로 종합한다(Lee, Lee, & Koh, 2002; Parse, 1998).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녹음된 대화내용을 잘 듣고 필사본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대화과정에서 떠오르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Parse의 분석과정에 따라 참여자의 구술내용을 추출하고, 참여자의 구술 추출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하였다. 종합한 연구자의 언어에서 언어-예술을 만들고, 이렇게 추출된 구조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고통에 관한 핵심 개념들을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

### 3) 발견적 해석

체험의 구조를 이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며, 논리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창조적인 마지막 과정이다. 이 과정은 구조적 통합과 개념적 해석과정을 거친다. 구조적 통합과정에서는 형성된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통합하고, 개념적 해석과정에서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 한다. 체험의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합한 역설적인 삶이다. 구조를 이론에 연결시키는 것은 경험적인 것을 이론적인 것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발견적 해석을 풍부히 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예술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주로 회화, 기쁨-슬픔, 제한-자유, 만족, 애통, 고통 등과 같은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어휘, 상징, 음악, 은유, 시, 사진, 그림 혹은 활동을 기술하기도 한다(Parse, 2001).

## 5. 연구자들의 준비과정

본 연구를 위한 본 연구자들의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 중 한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다년간 종교기관의 NGO 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습지원 봉사 및 자조모임 참여를 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해 설립된 하나센터 인천지부에서 정기적인 자문역할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그들의 심리적-인지적-행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고통 경험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료수집 초기에는 총 14명의 대상자를 포함시켜 진행하였다. 우선 난민이주자에 준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원의 사망 및 해체, 수용소 및 구금생활, 물리적 폭력, 굶주림, 인신매매, 국경이동경험 및 제3국에서의 도피생활 등을 경험했는지 여부와 그러한 심리적 고통 체험이 현재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자에게 개인 체험의 풍부성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 8명을 선택하여 2차 만남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는 약속을 정해놓고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은 대상자도 있었고, 드러냄의 한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대상자도 있었으며, 학업으로 인해 지방으로 가야 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여 최종 5명을 선택하였다. Parse연구방법을 포함한 현상학 방법의 기본 철학은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대상 및 사물에 대해 이미 세속적으로 습득된 연구자의 인식에 대한 판단을 중지시키기 위해 ‘괄호치기’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분석과정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자의 선행 경험이 발휘되어 연구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태도가 무엇인지 메모하였다. 예를 들면 면담 약속 후 어떠한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각기 다른 참여 대상자를 2회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한 연구자는 앞선 그런 경험이 차후 다른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에 부정적인 인식이나 가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들을 개별화시키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대상자의 행동이나 언어적 의미는 또 다른 대상자에게 확인하여 그것이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인지, 아니면 개인적 경향성의 차이인지를 확인해 나갔고 했다. 그러한 확인은 연구자가 차후 만나게 될 북한이

탈주민 대상자는 ‘이런 것이다’라는 앞선 가정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는 ‘실존적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실존적 가정의 유지’란 연구자에 의해 경험된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앞에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으로, 즉,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활세계 속에서 만났던 북한이탈주민 개인을 본 연구자와의 관계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그 북한이탈주민 개인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 6. 연구의 타당성

본 연구의 타당성(엄격성)을 높이기 위하여 Maxwell (1996)이 제시한 방법을 따랐다. 기술적 타당도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행동, 말, 흐름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록(녹취)하였으며, 해석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5명 참여자의 목소리, 느낌, 표현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면서 해석적 결과가 참여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도록 노력하였다. 이론적 타당도를 위해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자와 참여자간에 다소 장기간의 관계형성을 통한 대화는 심리적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의미’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연구주제의 특성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이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 체험한 심리적 고통과 충격을 드러내야 하는 관계로 풍부하고 깊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계형성은 상당히 중요하였다. 특히 과거의 깊은 외상으로 인해 삶의 해체를 경험하고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선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새로운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와의 신뢰유지와 친밀감 형성 없이 깊은 내면의 고통체험을 표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다. 그러한 사실들은 이미 국외 난민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Mekki-Berrada, Rousseau, & Bertot, 2001). 난민이주의 경험을 한 대상자와 충분한 시간에 걸친 신뢰감 형성 없이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왜 내가 당신의 연구를 도와야 하는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데 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생존을 고려해야 하기에 개인의 사적 신변이 드러나는 내용들을 밝히기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 남한출신 대상자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료 수집기간의 장기화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고통이라는 주제에 맞는 이론적 타당성을 구성하는데 벗어남이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평가적 타당도를 위해 본 연구참여자가 아닌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연구 전문가에게 읽게 하고 감동과 비판을 받아 해석적 의미를 나누었다. 일반화 가능성은 각 참여자의 이야기가 다른 참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강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고통 체험의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구결과

### 1. 참여자들의 구술 및 핵심 개념

분석의 첫 과정은 참여자 다섯 명의 구술을 통해 개념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우선 참여자의 언어를 적은 기록에서 그 경험의 주요내용을 추출한 후, 추출된 주요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다. 이후 언어-예술을 만들어 개념화 작업을 하였다.

#### 참여자 1의 구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사회... 배가 고프니.....형제, 부모도 모르고... 형은 배가 고프니까 꽃제비로... 애들하고 먹을 거 찾다니고... 비누도 없어서 씻지도 못하니까 이에 물러가지고 발진티프스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구... 밤에 나 혼자 두만강을 건너는데... 국경 경비 대원한테 걸린 거예요. 달려가면 총 맞아 죽기에 가만히 섰어요. 경비대원이 수용소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막 난리를 쳤어요. 중국에서 돌아다닐 때 아무 곳에서나 숨어서 자구... 항상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하니까 신발을 신고 잤거든요. 중국에서 북송되어 수용소 넘어가서 맞고 울고 했던 생각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옛날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공부에 집중이 안되는 거예요. 과거 생각 때문에 한국에 와서 1년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죽으면...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루고 싶은데...

북한이나 중국에서 지냈던 일 중에 사실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미치겠는 거야... 내가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을까...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구... 다시 하라면 죽어도 못 할 것 같아... 한국에 와서 스스로한테 과거를 잊어야 한다. 이 사회에서 내가 성장하는데 과거 기억해야 도움이 안 된다... 말하면서 단절해야 한다고 결심했거든요. 과거가 상처라 잊고 싶었어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안식처가 필요해요.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해요. 안식처에서 좀 쉬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검정고시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북한생활 떠오르면 '거기서 살 때 힘들었었지! 그때 내가 맞고 울고 그러면서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무자비하게 때려줬던 그 고문관이 지금 좀 몇 살 정도 되겠다. 생각하면서... 살아있을까? 궁금해지고... 그 사람도 북한에서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젠 그 사회가 이해가 돼. 잊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 참여자 1의 구술 추출

1. 비누가 없어 씻지 못하고 발진티프스에 걸렸으며 먹을 것이 없어 꽃제비로 살았던 전쟁 같은 사회였다.
2. 중국으로 탈북하였으나 결국 북송되어 수용소 생활을 하였다.
3. 한국에 와서 1년간 고통스러웠던 탈북과정의 생활이 떠올라 힘들었다.
4. 북한과 중국에서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잊어버리고 싶으나 상처가 너무 커서 잊지 못하고 안식처와 안전한 곳에서 쉬고 싶다.
5. 무자비하게 맞았던 북한생활이 떠오르나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 연구자 언어 종합

1. 궁핍과 질병이 들끓는 비참한 사회에서 탈북했어도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림.
2. 잊고 싶지만 의지와 관계없이 떠오르는 아픔을 달래기 위한 안전한 쉼터가 필요함.
3. 고문과 같은 잔혹했던 과거를 떨쳐버리고 현실에 몰입하고 싶음.

참여자 1의 언어-예술: 참여자 1의 남한입국 이전 심리적 고통 체험은 궁핍과 질병의 비참한 사회에서 탈북했지만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잊고 싶은 아픔을 달래줄 쉼터가 필요하고, 잔혹했던 과거를 떨치고 현실에 몰입하고 싶은 것이다.

#### 참여자 2의 구술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가족 간에 보살핌 사

랑 그런 건 느낄 수가 없어요.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성격이 포악해져서 같은 방에 있는 애들 머리도 잡아채고... 얼굴도 핏칠어 놓고... 공격성이 통제가 안되는 거예요... 사납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리저리 말아야 하는데... 공격적이 되고... 많이 두려웠어요. 매일 나쁜 꿈에 시달리는 거예요. 꿈에서도 한국가야 하는데... 빨리 여기를 빠져나와야 하는데... 꿈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한국 가려다가 베트남에서 잡혀가지고 1년을 중국에 있는 국제수용소에서... 잡히면 죽을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을 준비해 잡히면 약 먹을 거다. 각오하고 갔으니까... 잡힌 거예요. 약을 다 먹어 버렸어요. 무의식에 빠져 있었다가 주사 맞고 살아 난... 중국 국제수용소로 다시 들어가서 1년을 더 살게 된 거지요. 좁은 방에 6~7명이 같이 있었어... 창살 작은 문 앞에 사람들이 뒤로 일렬로 쫓 앉아요. 좁은 공간에 공기는 희박하지요... 먹는 거는 옥수수가루 한 덩어리씩 주니까... 비타민도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쇼크로 넘어지고... 죽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자리가 있어도 고통을 주느라 일부러 사람들을 앞뒤로 바짝 붙여 서라고 해요. 중국 간수가 내 인생이 안됐다고 생각했는지 사비를 내서 빼 준 거예요. 중국수용소에서 자살하려고 1주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어요. 밥덩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밀어주고 1주일을 지냈는데... 비틀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아났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도 죽어서 나가던데... 수용소에서 죽어 나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베트남에서 한 번, 중국에서 한 번 잡혀서 2년 1개월 수용소에서 살았으니까... 한국에 왔는데도 문득 문득 수용소에 있을 때 생각이 나요... 안 나는게 이상한 거지요... 근데... 기분이 이상해 저요... 정말 내가 수용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울컥하게 되요...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그대로 올라오구요... 내가 자살하려고 굶으면서 희망 없이 지냈던 기억들이 사진처럼 지나가요... 그러면 기분이 계속 가라앉으면서 우울해 지구... 나는 북한을 저주해요. 이가 조물거렸던 차디찬 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었던 모습... 성질은 사나워져서... 같은 방 사람들하고 할퀴고 싸우고...

인간이 죽지도 못하면서 세상하고 격리돼서 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됐어요. 그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을 수만 있다면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이 더 혹독해요. 죽음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그 고독감은... 혹독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죽는 것도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는 목숨보다 더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걸 감옥에서 알게 됐어요. 만일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또 한국 갈 거다. 꼭 간다. 절박하니까 더 간절해지더라구요. 간수가 보위부 사람들에게 돈을 따로 쥐서 북한

에서 중국까지 다시 데려다 줬어요. 북한에서 미래는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젠 내가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는데... 하나원에 들어와서부터는 정말 마음이 폭 놓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2시간이면 올 거리를 4년이나 걸려서 왔거든요. 고생해서 한국엘 들어온 건데... 지나간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허망한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자... 하면서 나를 달래요. 내가 겪어왔던 정신적 고통들, 육체적 고통들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나한테 비취 볼 때 나는 그걸 항상 잊지 말고 여기서 살아가는 힘으로 써야겠다. 그때는 고통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힘이 되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 오히려 과거 생각을 떠올려요.

## 참여자 2의 구술 추출

1. 가족관계 뿐 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모든 인간관계가 포악해지고 공격성이 통제가 안되었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기에 한국에 가고 싶었다.
2. 한국행 발각으로 2년간의 수용소 생활은 자살을 시도할만큼 고통스러웠다.
3. 문득 문득 수용소 생활이 떠오르면 기분이 이상해지고 느낌이 울컥하면서 희망 없이 지냈던 기억들로 우울해진다.
4. 죽고 싶을만큼 혹독한 수용소의 고통 속에서 자유는 목숨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박하게 알게 되어 돈을 따로 주고 중국으로 빠져나와 한국으로 들어오니 안도감이 들어 좋았다.
5. 고생한 지난 시간이 허망하였으나 잊지 말고 여기서 살아가는 힘으로 쓸 것이다.

## 연구자 언어 종합

1. 가족과 사회의 해체가 개인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탈북하여 한국에 가고 싶었음.
2. 탈북하다 잡혀 수용소 생활의 고통스런 경험으로 우울해짐.
3. 죽을만큼 혹독한 수용소의 고통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적극적으로 북한탈출을 감행했기에 한국에 올 수 있었음.
4. 절망뿐인 북한을 떠나 한국에 왔으니 허망하기도 하나 과거의 고통을 개인의 성장으로 삼고자 함.

참여자 2의 언어-예술: 참여자 2의 남한 입국 이전 심리적 고통 체험은 가족과 사회의 해체로 탈북하려 했으나, 죽을만큼 힘든 혹독한 수용소의 고통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적극적으로 북한탈출을 감행했기에 한국에 올 수 있었고,

과거의 고통들을 개인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 참여자 3의 구술

어머니가 석 달을 굶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원래는 작은누나하고 나하고 중국에 와서 돈 벌면서 같이 살려고 온 건데... 결국 중국 온지 4일 만에 집주인 여자가 작은누나를 길림에 사는 한족한테 시집보냈어요. 누나를 보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엔 중매인이 남동생 딸린 여자를 데려갈 사람이 없었으니... 나 보고 북한으로 다시 가라는 거야... 중국에서 살고 싶으면 북한여자를 중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래. 한 마디로 인신매매하라는 거지. 작은누나가 나보고 북한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중국에서 내가 북한여자를 중국에 넘기는 인신매매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중국에서도 북한사람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든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교화소나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장 두렵고 큰 심리적인 고통인 거예요. 독방에 갇혀서 3일 있었어요. 이틀에 주먹밥 1개 나왔는데... 굶고 배고파서 도망가라고 해도 기운이 없어서 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썩은 냄새는 코를 찌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앉아 있었어요. 세수도 못하고 기본적으로 닦지를 못해요. 이는 우글거리고... 수용소 생활하면서 무자비하게 맞으니까 모자란 놈처럼 보여야 덜 맞을까 해서 반은 병신짓하고 지냈었던 일들... 수용소에서 살아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모르지만 나에게 차려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그런 옛날 일들이 토막토막 생각이 나서 잠이 안와요. 그리고 국경에서 군인들한테 쫓기는 꿈을 가장 많이 꿴어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화나게 한 것도 아닌데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내 속도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청진교도소로 이송하던 중... 포승줄을 끊고... 뛰고 또 뛰었거든... 드디어 탈출에 성공한 거지요. 탈출해서 집에 돌아오니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내가 경찰들에게 우리집 주소를 사실대로 말했으니 우리는 지금 중국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해서 다시 중국으로 간 거예요. 큰누나가 우리 보고 싶다고 몰래 도강을 해서 북한 집에 주소를 남겨두고 갔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 큰누나하고 연결이 된 거지요. 작은누나는 인신매매되서 빠졌지만 우리 3형제들이 중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한국에 가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지요. 큰누나가 중국집에서 TV를 열심히 보다가 한국방송국에 이산가족 찾는 곳에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가고 싶어서... 한국에서 그 편지 내용이 읽혀지고 그랬나봐요. 다행히 큰아버지가 수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형제들을 한국으로 오게 도와주신 거예요.

깜깜한 밤에 길잡이 따라서 작은누나하고 내가 두만강을 넘었어요. 강을 건너면 산이 나와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깜깜한 산을 한 30분 걸었나... 그렇게 해서 국경을 넘은 거예요. 슬프거나 외로울 때 아픈 추억이 다시 떠올라...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고... 평생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 한 게 헛되진 않았다고 보는데... 현실이 힘들어도 견뎌낼 힘이 있다는 거지요. 과거에도 견뎌냈으니까요.

### 참여자 3의 구술 추출

1. 굶어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배고파하는 가족들과 먹고 살기 위해 중국으로 들어가 인신매매를 하며 살았다.
2. 인신매매로 잡혀 북송되어 수용소에서 고문당한 충격적인 경험들이 부글부글 속에서 끓어올라 화가 난다.
3. 교도소 이송 중 탈출에 성공하여 집에 들러 형제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서 한국행을 준비하였다.
4. 깜깜한 밤에 두만강 국경을 넘었던 마음 고생한 경험 이 헛되지 않았고 현실을 견디어낼 힘이 된다.

### 연구자 언어 종합

1. 굶주림과 인신매매 등으로 고문당하며 살아온 억울한 경험들이 분노가 되어 이주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줌.
2. 탈출에 성공하여 형제들을 챙겨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 입국을 준비함.
3. 목숨을 걸었던 탈북과정의 고통이 현재와 미래의 역경을 견디어낼 힘으로 전환됨.

참여자 3의 언어-예술: 참여자 3의 남한입국 이전 심리적 고통 체험은 굶주림과 인신매매 등으로 고문당하며 살아온 억울한 경험들이 분노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나, 형제들과 한국에 입국하였으니, 목숨을 건 탈북과정의 고통이 현재와 미래의 역경을 견디어낼 힘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 참여자 4의 구술

나 살자고 어떻게 자식을 둘이나 놓고 올 생각을 했겠어요. 몰랐으니까 따라 나섰지요. 남편이 중국 나가서 식량 얻어 오려고 작은 배를 하나 샀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탔던 거예요. 도착하게 되면 알려준다 해서 그런 줄 알고 배에서 잤어요. 눈을 떠보니 태극기가 보였어요... 내가 북한에 가 봐야 반역자의 자식이

라고 고생할 텐데... 그런 생각하면 자식 목숨은 지켜줄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북에 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들이 보고 싶으니까... 아이를 데려올 때까지는 한국에 사는 게 고통스러워...

애들 생각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니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아서... 밥을 거의 못 먹고 살아요. 계속 깡마르고... 남편한테 퍼붓고 싸우고 나면 손가락 마디가 절여오고... 온몸이 쭈시고 아파서 특히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항상 잠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식 이야기하는 걸 피하게 되고... 아이만 데려오면 내가 장사에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아이 생각하느라고... 장사하는데 온전히 신경을 못 쓰게 돼요. 남편하고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하지요.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혼자 이기질 못해서 매일 밤이면 울고... 이웃에 하소연하러 다니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는 어떻게 북에 있는 자식을 탈출시킬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를 한국에 데려오는 걸 한 번 실패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기신부전증까지 와서...

계속 이렇게 살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가슴 답답하고 화가 치밀 때는 리시버를 끼고 피아노를 몇 시간씩 두드리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지요. 내가 강아지 인형 두 마리를 사서 아이 대신 안고 자거든요.

#### 참여자 4의 구술 추출

1. 자식 둘을 북에 놓고 중국 가 식량을 얻어오자는 남편을 따라 배를 타니 태극기가 보였고 이제 북에 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이 보고 싶어 고통스럽다.
2. 애들 생각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밥을 먹을 수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매일 남편과 싸우면서 밤마다 울고 하소연하여 장사에 집중할 수 없으며 말기신부전증까지 왔다.
3. 가슴 답답하고 화가 날 때 감정조절하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며 강아지 인형 두 마리를 안고 잤다.

#### 연구자 언어 종합

1. 자녀를 북에 두고 식량을 구하자던 남편이 아내 모르게 남한에 왔기에 자녀가 그림고 고통이 됨.
2. 북에 두고 온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과 상실감은 식음전폐, 불면증, 부부싸움, 치명적인 질병으로 전환되어 현실에 몰입하기 힘든 상태가 됨.
3. 가족해체의 고통으로 환병이 치솟을 때는 음악으로 감

정을 달래며 인형을 자식삼아 위로해 봄.

참여자 4의 언어-예술: 참여자 4의 남한 입국 이전 심리적 고통 체험은 북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은 식음전폐, 불면증, 부부싸움, 질병 등으로 전환되어 현실몰입이 힘들며, 치솟는 환병을 음악으로 달래며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 참여자 5의 구술

중국으로 팔려온 여자들은 얼굴도 이상하게 변해요. 올 때는 예뻐는데 점점 일그러지게 되고... 도망가야 또 잡히니까 처음에는 엄두를 못내요. 사람이 처음에 함정에 빠졌을 때는 빠져나오려고 간간 힘을 쓰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소용없구나 알게 되면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요. 부녀주임이 내가 북한여자라고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복송됐어요. 사람이 국적이 없으니까 사는 게 늘 위태롭고... 억울해도 말 할 곳이 없어... 그렇게 복송되어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각목을 다리 사이에 끼 놓고 허벅지고 뒤통고 가리지 않고 때리는데... 그 때 이가 부러졌어요. 온 몸이 통통 붓도록 맞았는데... 혼자서 걸을 수도 없어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맞았어요... 조사받고 호실로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도 팬티에 브라자까지 다 벗겨요. 그런데 남자 교도관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젖가슴도 주무르고 음부에 숨긴 건 없는지 손가락 넣어서 속까지 다 찢러봐요. 그것보다 더 나가기도 해요. 방 안에 있는 여자들이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렇게 방 사람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몰매주고 싸우고 그렇게 지냈어요. 산다는 게 목숨만 달렸지 사는 게 아니었어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내 인생은 더 이상 없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한국엘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목숨만 달렸지 내가 없는 거야. 중국 남자하고 살면서 2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중국 남자하고 산다고 해서 중국에 내 호적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식도 법적으로는 사생아인 거예요. 중국에서는 내 자리만 없는 게 아니라 자식 자리도 없는 거지요. 중국에 있는 아이 생각나니까... 밤에는 잠이 안와서 눈만 땡글땡글 굴리게 되요. 새벽 3~4시까지 잠이 안와요. 일이 없으면 낮에도 거의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게 되요. 사람들에게 전화와도 받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안 받았어요.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나한테 중국에 잘사는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자꾸 강요를 해서... 결국 내가 중국남자한테 시집가기로 결심하고 북한 농촌에서 중국 가는 여자를 모집하는데 지원을 해서 중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시집 안가면 중국에 거처가 없으니까 중국공간에 잡혀서 그대로 복송되는 건 당연하지요. 남



자는 소를 팔아서 나를 데려왔다고 하더라구요.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 심정은 알아주지도 않고... 북송되어 수용소 생활 마치고 친정집에서 거의 20일만에 몸을 좀 추스르게 되니까 엄마가 내가 있을 곳은 중국이니까 다시 중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번엔 오빠를 데리고 가라고... 중국에 와서 오빠가 집박을 나가서 2~3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중국남편한테 돈받아 가고 그랬어요. 남편한테 정말 미안해지는 거예요. 오빠까지 와서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옆집 사는 중국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나를 깨물고 때려주고 그랬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말려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같이 때리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야밤에 몰래 도망쳐 나오기는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빈집에 숨어서 있는데... 누가 들어올까 봐 신발을 꼭 신고 잤어요. 한국에 더 가야 했어요. 차라리 한국 가다가 죽는 게 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자식이고 뭐도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원부터는 긴장이 풀려 그런지... 아침 작업하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나오는 거야... 한국에 온 거는 좋은데... 중국에 두고 온 아이가 생각나서... 살면서 애를 데려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갈 땐 내 가족들 위해서 간 건데 삶에 끈을 놓지 말자. 오히려 그걸 디딤돌로 삼자... 그런 식으로 내 정신적 각오를 새롭게 하려고 했어요. 과거에 빠져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자꾸 그러면 현재가 안보여. 중요한 건 현재거든. 그래서 내가 과거에서 뺄 건 빠지로 했어요. 한국에 오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과거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던 게 오히려 힘이 되요.

### 참여자 5의 구술 추출

1. 중국으로 팔려온 북한 여자는 함정에 빠져 안간힘을 써도 소용이 없어 포기하게 되며, 위태롭고 억울하지만 국적이 없어 북송되어 수용소 생활에서 죽기 직전까지 온 몸을 얻어맞으며 옷을 다 벗기고 온갖 괴롭힘을 당하니 중국에서도 목숨만 달렸지 사는 게 아닌 인생이기에 한국에 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중국에 두고 온 아이생각에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고 낮에는 거의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2. 가족이 너무나 살기 힘들어지니 중국 남자에게 시집가게 되어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으나 가족들은 그 심정을 알아주지 않고 형제까지 중국으로 데리고 가야했으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구타하여 살 수가 없어 야밤에 탈출하였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식 생각이 나지 않았으나 하나원에서 생활하니 중국에 두고

온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진다.

3. 북한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갔으나 중국에서도 살 수가 없어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것이니 정신적 각오를 새롭게 하고 과거의 고생을 디딤돌 삼아 힘으로 여긴다.

### 연구자 언어 종합

1. 중국으로 팔려와 불법체류자로 살다가 북송되어 고문을 당해 살기 위해 한국에 왔으나 중국에 두고 온 자녀생각에 고통스럽고 무기력해짐.
2. 북한과 중국에서 고통스러웠던 가족관계로부터 탈출하여 한국에 왔으나 중국에 두고 온 자녀를 찾고 싶음.
3. 해체된 가족을 통합하기 위한 바람으로 견디어온 고통들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시킴.

참여자 5의 언어-예술: 참여자 5의 남한 입국 이전 심리적 고통 체험은 중국에 팔려온 불법체류자로 살다 북송되어 고문을 당해 한국에 왔으며, 중국에 두고 온 자녀를 찾고 싶고, 해체된 가족을 통합하기 위하여 견디어 온 고통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 2. 언어-예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이전 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 체험의 구조와 Parse의 이론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구술에서 추출한 언어-예술로 체험의 구조를 종합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참여자 1은 비참한 사회에서 탈북은 했지만 심리적 후유증으로 아픔이 깊어 안전한 쉼터에 머물러 쉬고 싶은 심정을 호소하였다. 또한 탈북실패로 고문당했던 잔혹한 과거를 잊고 현실에 몰입하여 자활의 의지를 굳혀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굶주림과 질병, 수용소에서 고문당했던 고통스런 체험 등을 전쟁에 비유하며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런 체험들 대한 상상화를 드러내었다. 또한 남한에 입국했으나 상처만 남긴 과거를 잊고 싶어 사람들을 피해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분리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의 열고 싶어 하는 연계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북한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그 고문관 역시 북한사회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과거를 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굳어가는 변형성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 2는 가족과 사회의 해체와 수용소의 고통 속에서

Table 1. Language-art

참여자	언어-예술	개념적 통합
참여자 1	궁핍과 질병의 비참한 사회에서 탈북 했지만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잊고 싶은 아픔을 달래 줄 컴퓨터가 필요하고, 잔혹했던 과거를 떨치고 현실에 몰입하고 싶은 것이다.	상상화 연결-분리 변형성
참여자 2	가족과 사회의 해체로 탈북하려 했으나, 죽을 만큼 힘든 혹독한 수용소의 고통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적극적으로 북한탈출을 감행했기에 한국에 올 수 있었고, 과거의 고통들을 개인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상상화 연결-분리 변형성
참여자 3	굶주림과 인신매매 등으로 고문당하며 살아온 억울한 경험들이 분노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나, 형제들과 한국에 입국하였으니, 목숨을 건 탈북과정의 고통이 현재와 미래의 역경을 견디어낼 힘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가치화 연결-분리 변형성
참여자 4	북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은 식음전폐, 불면증, 부부싸움, 질병 등으로 전환되어 현실몰입이 힘들며, 치솟는 핫병을 음악으로 달래며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상상화 연결-분리 변형성
참여자 5	중국에 팔려온 불법체류자로 살다 복송 되어 고문을 당해 한국에 왔으며, 중국에 두고 온 자녀를 찾고 싶고, 해체된 가족을 통합하기 위하여 견디어 온 고통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가치화 연결-분리 변형성

북한탈출을 감행했기에 한국에 왔고, 과거의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는 자살을 시도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수용소 생활, 포악한 사회분위기, 보살핌을 줄 수 없었던 가족관계를 그려보았다. 미래가 없었던 북한에서 분리되어 남한에 입국하여 안도감으로 연계되니 과거의 고통을 남한에서의 생존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변형성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참여자 3은 목숨을 건 탈북과정의 고통이 현재와 미래의 역경을 견디어낼 힘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참여자가 체험한 북한에서의 굶주림과 고문 등의 고통은 억울함과 분노로 인식되는 가치화를 나타내었다. 북한과 중국에 있던 형제들과 함께 탈출하여 북한사회와 분리되었으나 남한입국 이후에도 과거의 심리적 고통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들이 새로운 이주국인 남한에서의 현재와 미래의 역경을 견디어낼 힘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변형성을 보여 주었다.

참여자 4는 북에 두고 온 자녀를 그리워하는 상상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녀로 인한 잦은 부부싸움, 일상적인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체중이 극도로 감소하게 되고, 불면증, 핫병 및 말기신부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질환까지 얻게 됨으로써 현실에 연계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음악으로 달래고 인형이라는 대체물로 위로하면서 조절하여 극복해보려는 변형성의 과정을 나타내었다.

참여자 5는 중국에 팔려온 불법체류자로 살다 한국에 왔

으나, 홀로 오기도 힘들었던 한국이기에 데려올 수 없었던 자녀를 찾고 싶어지고, 해체된 가족을 통합하기 위한 고통이 삶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참여자는 팔려간 불법체류였던 자신의 삶을 인식하는 가치화를 나타내었다. 해체된 가족을 통합으로 연계시키려니 과거의 고통들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변형성을 제시하였다.

### 3. 발견적 해석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이전 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 체험에 대한 발견적 해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 비참한 사회와 가족해체, 2) 탈북과정에서의 충격, 3) 생존자로서의 고통, 4) 극복을 향한 성장과 삶의 방향 전환이라는 네 개의 핵심개념으로 추출되었다. 네 개의 핵심개념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전 심리적 고통 체험은 비참한 사회와 가족해체로 탈북과정에서의 충격과 생존자로서의 고통을 느끼나 극복을 향한 성장과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체험의 과정이다.’라는 하나의 구조로 나타났다.

추출된 구조를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 전환시키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전 심리적 고통 체험은 잊고 싶은 과거와 몰입하기 힘든 현실로 인한 고통을 반추하면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 시도하는 과정이다.’로 정리되었다. 위의 발견적 해석의 결과인 네 개의 핵심개념을 구조적으로 전환시켜 개념적으로 통합시키면 다음과 같이 정

Table 2. Progressive Abstraction of the Core Concepts

핵심개념	구조적 전환	개념적 통합
비참한 사회와 가족해체 탈북과정에서의 충격 생존자로서의 고통 극복을 향한 성장과 삶의 방향 전환	잊고 싶은 과거 몰입하기 힘든 현실 심리적 충격에 대한 반추 심리사회적 위기에 대한 긍정적 전환 시도	가치화 상상화 연결-분리 변형성
<b>구조</b>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전 심리적 고통 체험은 비참한 북한 사회를 벗어나는 과정에서의 충격과 가족해체로 생존자로서의 고통을 겪게 되나 극복을 향한 개인 성장과 가족 통합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고통스런 체험 과정이다.		
<b>구조적 전환</b>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전 심리적 고통 체험은 잊고 싶은 과거와 몰입하기 힘든 현실로 인한 고통을 반추하면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b>개념적 통합</b>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전 심리적 고통 체험은 가치와 상상화를 연결-분리하여 변형시켜가는 과정이다.		
<b>예술적 표현</b>		
<b>제목: 귀순 후유증</b> 의사선생님은 / 나를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 때때로 / 숨이 꼭 막히면서 / 혈압이 떨어지나구요. /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 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 그러자 / 의사선생님의 진단은 / 귀순 후유증이라는 겁니다. / 더구나 어떤 명의도 / 이 병을 고칠 처방을 /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 그 처방은 오직 통일뿐이라며... / 북한에도 이런 환자가 많겠지요. / 어린 두 딸애들을 데리고 / 한 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 당신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b>제목: 지금이 행복하다</b> 몇 백번의 삶과 죽음 엮바뀐 삶이기에 /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아침! 나는 외롭지 않다. / 그래서 늘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자유여” 오늘도 나는 세상을 만끽한다. “아, 행복한 내일이여”		

리될 수 있다.

첫째, 참여자들이 체험한 남한 입국 이전 심리적 고통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굶주림, 질병, 아사, 인신매매, 고문, 수용소 생활 등 전쟁과 같이 비참했던 사회 체제와 그로 인해 초래된 가족해체라는 가치화를 드러내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굶주림은 심리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고통이었으며 가족의 아사와 질병노출이라는 극도의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더 이상 가족 간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었다. 젊은 여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북한 가족의 생계 책임을 떠맡게 되어 불법체류자로서 국경이동을 통해 중국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을 나타내었다.

둘째,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은 난민들에게 가장 충격이 심하고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는 탈출 이전과 탈출과정 기간이라 할 수 있다(Hong, 2004; Jeon, 2007; Kim, 2009). 북한이탈주민도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굶주림, 구타, 고문, 강제노역 등과 같은 다양한 육체적 외상뿐 아니라, 감금, 감시, 세뇌, 공개처형 목격 등과 같은 정치 사상적 외상, 가족의 죽음 목격 및 이별 등과 같은 가족과 연관된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식량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굶주림 경험, 가족 및 친인척 등의 아사 목격, 안전원으로부터의 구타와 고문, 자신이나 가족 및 친인척이 정치적 과오로 인해 사상성을 의심받아 처벌됨, 사상 투쟁의 대상이 된 경험, 출신성분으로 인한 고통,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 생활, 공개처형 목격 및 타인의 고문 목격, 가족이 파라티프스 및 폐결핵 등으로 죽어가는 과정에서 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경험 등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이 탈출을 결심하게 되면 탈북 준비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또한 발각위험과 가족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심적 고통 등을 경험하게 된다. 탈북과정에서는 음식물과 식수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경

험, 국경 북한경비병 또는 중국경비대의 검열로 긴장 또는 체포된 경험, 가족과의 어쩔 수 없는 이별,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경험, 성폭력 피해, 제3국의 낯선 언어, 낯선 얼굴, 낯선 땅에 처음 대했을 때,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망명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 사격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경험 등이 심리적 고통 체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 역시 북한 내에서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체험했던 충격적 사건들에 대한 상상화는 남한 입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겠다.

셋째,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충격적인 고통 속에서도 생존한 대상자들과 할 수 있다. 이들은 진심으로 잊고 싶고 단절하고 싶은 과거로 인해 현실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연계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원치 않는 기억들이 침습하여 현실 몰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가족통합추구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음으로써 해서, 반추를 통해 외상의 심리적 충격을 조절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분리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과 연계되고자 하였다.

넷째, 외상 후 스트레스의 고통으로 참여자들은 남한입국 이후 다양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심리적 외상 체험을 남한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심리적 성숙과 개인의 성장 에너지로서의 긍정적인 대처의 힘으로 변형시켜 나아갔다. 위기를 경험하는 개인들이 근본적인 가치와 신념에 도전을 받게 되고, 역할에서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러한 고통과 마주치면서 연계되는 과정을 통해 폭넓은 관점, 새로운 대처 기술, 그리고 개인적·사회적 자원의 개발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점(Tedeschi & Calhoun, 1995)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이전 심리적 외상 체험의 통합된 구조는 익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쓴 시 「귀순 후유증」과 「지금이 행복하다」라는 일부 표현을 통해 변형되어진다(Anonymous North Korean refugee, 2003; Han, 2006). 시에서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때때로/ 숨이 꼭 막히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은 외상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남북한 통일이라는 처방만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어떤 명의도 이 병을 고칠 처방이 없다는 것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체험을 가치화하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뿐

만 아니라 북한에 남겨진 그들의 가족도 겪게 된다는 점이다. 가족구성원이 남한으로 탈출했을 경우 북에 남은 가족은 출신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미래가 없는 고통스런 삶을 살게 된다. 시인은 그러한 이유를 알기에 두고 온 어린 두 딸애를 데리고 한 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자신의 배우자를 상상하며 1958년 남북한 분단이 통합이라는 연계를 이루게 되길 바라였다. 또 다른 시에서 몇 백번의 삶과 죽음이 엇바뀐 삶이었기에 살아있는 오늘의 일상이 소중하며 자유로워 내일도 행복하다는 남한에서의 삶의 변형성을 표현하고 있다.

## 논 의

심리적 고통이란 북한이탈주민이 체험한 ‘보이지 않는 상처’로 이주과정 또는 이주 이전 과정에서 겪었던 극심한 위협이나 충격을 의미한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홍수로 인해 북한 주류 식량의 80%에 해당하는 옥수수작물이 망가지면서 북한의 식량 경제난이 심각해졌다.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공안들의 감시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려는 이주민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생존의 위협과 동시에 정치적인 위협을 동시에 겪었지만 인권적 측면에서 남한에 입국하기 전에는 어느 국가로부터도 아무런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1999년 중국에서 실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조사에 의하면, 93%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식량과 물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고 89%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질병을 앓고 있었다. 90%가 불안을, 81%가 우울증상을 호소하였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이행할 확률이 56%라고 보고하였다(Kim, Kim, Ahn, & Yoo, 2006).

일반적으로 난민이주자들의 전형적인 경험은 자국으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하기 이전(pre-migration)까지의 경험이 이주 이후 삶에 영향을 미쳐 흔히 심리·정서적 고통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나타낸다고 제시되고 있다(Herman, 1997; Schweitzer, Melville, Steel, & Lacherez, 2006; Watters, 2001). 난민이주자들의 이주 이전에 따른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고문, 강제노동, 굶주림, 감시와 잔혹한 폭력행위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 및 죽음 목격, 전쟁, 성폭행, 집단수용소 생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림, 수용소에서의 영양실조, 신체적 상해 및 대량학살, 인질이 됨, 군사전쟁, 세뇌, 고문, 기근 및 불법이주 생활로 인한 희생의 위험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난민이주자로서의 현



상들은 본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 외상 체험에서 나타난 바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난민이주자들의 경우 이주 이후에는 이주 이전에 경험하였던 심리적 외상 경험의 후유증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 연합되어,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감,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약물남용 및 자살생각 등을 노출시켜 정신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문헌을 통해 밝혀졌다(Keys & Kane, 2004; Watters, 2001)

난민들이 경험한 충격적인 고통 경험의 증상 결과는 신체적 각성을 포함한 행동적 영역, 정신적 영역, 정서적 영역에서 심층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생산하게 된다. 신체적 각성 영역에서는 불면, 신체화 증상, 쉽게 피곤함, 안절부절 못함, 그리고 과도한 경계 등을 나타내면서 행동적으로는 쉽게 놀라거나, 작은 자극에도 불안정하게 반응하며, 폭발적인 공격적 행동, 특정 장소나 상황을 회피함, 대인관계 철회 등으로 이어진다. 정서적 영역에서는 일반화된 불안 증상과 구체적인 공포 등이 연합되면서 안전과 보호된 삶 속에서도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며, 우울, 상실에 대한 슬픔, 분노, 무감정, 생존자 죄책감, 신뢰의 상실, 자존감 상실, 무기력감, 타인과 정서적 철회, 과도하거나 극단적인 감정 그리고 만성적인 공허감 등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영역에서는 공포스런 사건들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것처럼 그 사건을 재 체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치 않는 과거 기억의 반복적 침습으로 인해 현재의 일상적인 과정을 시작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집중곤란과 기억력 약화, 사격을 받거나 추적당하는 등의 악몽, 그리고 전체 맥락에 따른 기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맥락 없이 파편화된 이미지 또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각인된 부분만 세밀하게 묘사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자신과 분리된 해리를 동반하기도 함으로써 마치 현실과는 분리된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Herman, 1997).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수용소생활이나 고문경험, 총탄이 날아오는 국경탈출과정, 예상치 않았던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은 현실 몰입에 장애를 초래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외상 사건의 경험 또는 극단적인 심리적 고통이란 갑작스럽고 기대하지 않았던 충격적 사건의 결과이며, 예상 하였다 할지라도 당시 비극적인 삶의 환경은 개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일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기에 만성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역행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시킬 수 있

다. 이렇게 개인 통제에서 벗어나 역행시킬 수 없는 변화들은 직접적이고 교정적인 조치를 거의 취할 수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인의 삶 속에서 무기력함, 우울, 불안, 물질중독, 자살충동, 신체화 증상 및 자아기능의 손상 등을 일으키게 하면서, 개인의 불행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Calhoun & Tedesch, 1999). 그러나 일반적으로 난민의 외상 경험은 미래의 스트레스원에 대해서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속적이며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Rho & Won, 2009). 난민이주자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과 관련된 외상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는 것(Hong, 2004; Schweitzer et al., 2006)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볼 때 자녀를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대상자들의 심리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현상은 극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난민의 외상 경험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상호연계된 일반적으로 누적된 경향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관련된 증상, 삶에 대한 의미 상실과 같은 실존적 의미의 위기, 정체성 상실 및 임파워먼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심 등 과 같이 정신건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Schweitzer et al., 2006). Tedeschi와 Calhoun (1995)은 심리적 충격이라 할 수 있는 외상의 일상적 초기 반응을 정서, 인지,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서적으로는 다룰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인지적으로는 포괄적이지 않은 스키마를 형성하게 되며 행동적으로는 일차 통제 실패로 불안정하거나 외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한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입국 이전의 심층적인 체험의 영향을 감히 선형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에 남한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지지 않은 갑작스런 짜증, 분노, 우울, 신경질적 반응, 고집스러움, 과도한 의심과 경계 등의 반응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초기 남한 입국자들의 경우 남한의 이국적분위기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중첩되어 심리적 후유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북한이탈주민은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던 심리적 외상 체험으로 인하여 인지적으로 현실에 몰입할 수 없는 침투적 사고를 나타냈다. 극단적인 긴장

속에서 소모된 정서적 에너지는 분노, 우울, 짜증, 무기력감, 악에 치받침, 응어리진 한과 같은 돌아오기 힘든 평상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심리적 에너지의 재충전을 위해 안전한 곳에서 쉬고 싶다는 욕구로 행동적으로 대인관계에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싶어 했다. 이러한 현상은 속고 속였던 탈북과정에서의 외상 체험으로 타인을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생존을 위한 과정에서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고통 체험은 개인의 존재감을 상실하게 하고 자아의 지속성을 좌절시키기 때문에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초래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을 확장시킴으로써 심리적 고통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외상 사건에서의 생존은 성장의 변화와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데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심리·정서적 고통은 스스로 다루어가는 긍정적 대처 기제와 사회적 유대감을 통한 지지로 일정기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감소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심리적 고통과 관련된 정서를 충분히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고통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고통 후유증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정신건강전문가는 생존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한 자신, 자신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고통 속에서도 혜택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적 경향성을 개발토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성장에 대한 인식은 대상자의 자존감을 유지시키고, 통제감을 향상시키며, 절망이 현재를 위협하고 아직도 취약함 속에 있다고 해도 희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Tedeschi & Calhoun, 1995).

정신건강전문가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노출요법(exposure therapy)’이라 할 수 있다. 인지행동적인 관점에서 외상 사건에 대해 직면하고 적극적인 재 경험을 통해 인지적 재구성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적 과정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이때 마치 당시 상황의 목격자가 된 것처럼 관련된 상황을 가능한 자세히 묘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치료자는 물론 북한이탈주민과 충분한 라포를 형성한 이후 지지적인 상담과정에서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심리적 외상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상담 치료의 필수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일부러 과거의 고통스런 체험을 폭로하게 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는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정서적·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면서 상담 치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기 전에 체험했던 심리적 고통이 입국 이후 인지적·정서적·행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입국 이후 체험하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이전의 심리적 고통은 입국 이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중첩되면서 더 가중된다는 연구결과(Jeon, 2007)를 전제로 할 때, 그 가치의 수준을 참여자의 내러티브에 담지 못하였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자 한다. 연구제언으로는 남한사회문화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실천적인 치료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실행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 결론

본 연구에게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남한 입국 이전에 경험한 심리적 고통 체험이 남한 입국 이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Parse의 인간되어감 방법을 적용하여 그 의미와 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입국 이후에도 수년간 불면, 악몽, 무기력감, 의지와 관계없는 외상 체험의 침투적 사고, 우울, 짜증, 분노, 현실 몰입의 어려움 등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주요 증상들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고통 체험으로 인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이주자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심리적 고통의 후유증 회복을 위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어진다.

## REFERENCES

- Anonymous North Korean refugee. (2003). *Naked confession of poetry*. Seoul: living books.
- Arnoff, F. N. (1975). Social consequences of policy towards mental illness. *Science*, 188, 1277-1281.
- Calhoun, L. G., & Tedeschi, R. G. (1999).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Han, E. H. (2006). Now I am happy. Retrieved March 10, 2006,

- from <http://www.nkd.or.kr/>
- Herman, J. L. (1997).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 Hong, C. Y. (2004). *The 3 years follow up stud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North Korean defe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Jeon, W. T. (2007). *Unification of people and unification of n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Keyes, E. F., & Kane, C. F. (2004). Belonging and adapting: Mental health of Bosnian refugee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5, 809-831.
- Kim, C. O., Kim, Y. H., Ahn, N. Y., & Yoo, S. E. (2006). *Guide book for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defectors*. Seoul: Beautiful Life.
- Kim, H. K. (2009). *A psychological trauma and recovery among North Korean refugees*. Kyounggi: KSI.
- Kim, H. K., & Lee, O. J. (200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Nursing Science Quarterly*, 22(1), 85-88.
- Lee, J. S., Lee, O. J., & Koh, M. S. (2002).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 (R. R. Parse, Trans.). Seoul: Hyunmoo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Lee, O. J., & Kim, H. K. (2007). Lived experience of considering tomorrow among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7), 1212-1222.
- Maxwell, J. A.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London: Sage Publication.
- Mekki-Berrada, A., Rousseau, C., & Bertot, J. (2001). Research on refugees: Means of transmitting suffering and forging social bond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30(2), 41-57.
- Ministry of Unification (2010, January 5). *Entrance statistics for North Korean refugees*. Retrieved January 5, 2010, from <http://www.unikorea.go.kr>
- Parse, R. R. (1998). *The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 London: Sage.
- Parse, R. R. (2001). *Qualitative inquiry: the path of sciencing*. Sudbury, MA: Jones & Bartlett.
- Rho, I. S., & Won, J. S. (2009). The relations of depression, anxiety, post-traumatic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adjustment among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1), 69-77.
- Schweitzer, R., Melville, F., Steel, Z., & Lacherez, P. (2006). Trauma, post-migration living difficulties,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in resettled Sudanese refuge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 179-187.
- Summerfield, D. (1996). *The impact of war and atrocity on civilian population: Basic principles for NGO interventions and a critique of psycho-social trauma projects*. London, England: Relief and Rehabilitation Network.
- Tedeschi, R., & Calhoun, L. (1995). *Trauma &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 Watters, C. (2001). Emerging paradigms in the mental health care of refugees. *Social Science & Medicine*, 52, 1709-1718.